

강 문화의 무형문화유산적 특징과 의미*

-만경강과 동진강을 중심으로-

정 성 미**

목 차

- I. 서론
- II. 기존연구 검토
- III. 연구대상 및 방법
- IV. 강 문화와 무형문화유산과의 연관성
- V. 무형문화유산 범주로 살펴본 강 문화
- VI. 결론

국문초록 | 강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각종 개발 사업과 강 문화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자료가 강과 관련하여 시간, 공간, 주제의 다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이 연구는 강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형문화유산적 관점에서 해석해보았다. 강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면담조사를 토대로 그들이 강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관념을 무형문화유산 속성에 비추어 분석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찾아보았다. 특정 지역을 관통하며 흐르는 강은 전환경적 개발의 대상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삶과 문화가 가치 있게 조사되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8104104)

** 鄭成美,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pyramid58@hanmail.net
투고일: 2021. 4. 29. 심사완료일: 2021. 5. 27. 게재확정일: 2021. 6. 6.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0..283>

기록되어야 한다. 강 문화는 고유의 생태계와 통시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강 문화라고 해서 강과 바다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합수 지점과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감소하천 구간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바라보고,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자연과의 상호조화를 이루며,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지속해온 사회문화적 속성에 주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강 문화, 무형문화유산, 하천, 인식, 면담조사

I. 서론

강은 생명의 근원이며, 문명의 요람이다. 근래에 강과 하천¹⁾에 대한 관심이 1982년 한강종합개발사업, 2003년 청계천, 4대강 사업 등으로 급증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량 수탈을 목적으로 한 농업용수 개발과 수력발전을 위한 하천개수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광복 이후 196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범람지는 개발되어졌고, 경작지는 도시로 바뀌었으며, 인공 제방, 하도정비, 하천 직강화 등 자연하천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²⁾ 1970년대까지 종합치수계획으로 수자원개발, 홍수피해 방지, 댐건설 등이 지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주목할 점은 1961년 하천법의 제정이다.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조선하천령이 제정·시행되었지만, 광복이후 한국 정부 주도로 최초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점차적으로 국토에 농지가 많아지고, 농약

-
- 1) 일반적으로 강은 규모에 따라 대하천, 중소하천, 소하천, 개울, 도랑, 수계에 따라 분류, 지류, 지세에 따라 산지하천(급류하천), 평지하천(완류하천), 간헐천, 지역에 따라 도시하천, 지방하천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강과 하천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겠다.
 - 2) 전수빈, 「도심하천복원과 지역주민 거주환경의식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1쪽.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수질이 악화되었고, 이 시기부터 수질 오염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났다. 하천 환경 개념이 강화되어 생태복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는 강을 ‘자원화’ 하여 관광개발에 활용할 때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하천경관’ 개념이 발표되었다. 강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각종 복원과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하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를 만들어 실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 유역의 개발을 통해 생태탐방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개발된 강 유역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³⁾ 따라서 이 글은 강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강 생태와 문화에 대한 보존과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확산되었지만, 학문적인 논의와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

본고에서의 강은 하천, 시내, 개울, 여울 등으로도 호칭되며,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연속성이 있는 크고 작은 물줄기를 포함한다. 흔히 강 주변을 수변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수변은 수제, 연안역, 임해부 그리고 물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다.⁴⁾ 그러나 수변은 물가라는 위치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식수, 어업 등과 같은 물의 직접적인 이용과 주거, 놀이 등과 같이 간접적인 이용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용어가 아니다.⁵⁾ 강은 단순한 자연환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반영된 역사, 문화와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4대 강 유역 문화자원 현황조사 및 문화지도 제작방안 연구』, 2009, 26쪽.

4) 이정재, 「하천변 친수공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6쪽.

5) 이정재, 위의 논문, 6쪽.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강 문화는 그 지역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문화(문화)로서 형성된 것이다. 점차적으로 강 개발에 있어서도 ‘문화를 중심에 둔 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문화경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유명한 곳에서도 강은 매우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자원이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정 유형문화재와 역사적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강 프로젝트와 문화경관으로 가치가 있는 강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도시재생을 이룬 주요한 예는 다음과 같다. 미국 프로비던스시 워터플레이스 파크(Providence Waterplace park)는 세 강(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시 우나스퀘터켓강, 포로비던스강, 모샤석강)이 만나는 지점에 워터플레이스를 만들고 공원화하여 쇠락한 도심을 ‘친환경 도시’로 개발한 사례이다.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San Antonio River Walk)는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강에서 도심 중심부로 물을 끌어들이어 운하와 산책로를 조성했다. 특히 텍사스 독립운동 당시 전투기지로 이용된 앨러모 성당 등을 중심으로 한 역사보존구간을 조성했다. 독일 라인강 고성 가도는 남부독일 라인강의 만하임에서 뉘른베르크까지 250km에 달하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옛 성을 활용한 관광개발의 예이다. 이처럼 강 관련 개발 사업에서 유형문화유산은 비교적 고려되고 있지만, 무형문화유산(7)에 대한 연구와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고 전승하는 무형문화유산의 경우는 조사와 기록하러

6) 이 글에서 생활문화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를 통틀어 이르는 용어이다.

7)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법적·행정적·재정적 기초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9). 이 협약의 제2조 정의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공간을 의미한다.

는 노력이 없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시급하다.

이제 강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각종 개발 사업과 강 문화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자료가 강과 관련하여 시간, 공간, 주제의 다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까? 이 글에서 무형문화유산에 주목한 이유는 지역민에 의해서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며 마을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따라서 연구의 주된 목적은 강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면담조사를 토대로 그들이 강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관념과 경험을 무형문화유산 범주로 분석하고 가치를 찾는 것이다.

II. 기존연구 검토

강 유역을 구분하여 문화권을 설정하고 연구하는 방식은 고고학 분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성정용 외:2012, 김낙중:2009, 광장근:2014, 이현숙:2014). 강 유역을 나누거나 같은 강에서도 상류, 중류, 하류로 세분하여 고고학적인 유적과 유물로서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힌다. 선사·고대 시대에는 해상교통이 활발했기 때문에 사람과 물류가 이동하면서 발생한 문화가 유의미하다. 그래서 뱃길을 따라서 형성된 정치체 및 청동기, 철기 등 유입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예컨대 박승희(2019)는 낙동강 문물 교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고고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이 지역의 고대 문명을 교류와 혁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⁸⁾ 이러한 연구는 유적과 유물을 토대로 진화론적 시각에서 시대구분을 위한 문화의 변화 양상을 밝히는데 주로 집중한다. 본고에서는 사람들이 실제 강을 대상으로 한 인식과 행동양상에

8) 박승희, 「낙동강의 고대문명과 교류·혁신 콘텐츠 연구」, 『대구경북연구』 18-2, 2019.

주목하여 강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강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론이다.

강과 하천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문화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조경학, 지리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오민근(2011)은 경관의 개념, 하천 경관의 공간적 범위, 하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 경관의 법제적 여건 및 계획과정에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천과 연계한 친수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문지영·오덕성(2007)은 서울, 샌 안토니오, 후쿠오카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도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반영하는 개발을 통해 해당지역만의 장소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산구곡의 옛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영남의 구곡문화의 특징과 의의를 분석한 박은희(2014)의 연구도 있다. 계곡을 분석할 때 형태요소, 인문요소, 경관요소를 구분하여 추출하였다는 점이 의미 하지만 인문요소는 대부분 유형문화유산에 국한되어 있다.⁹⁾

이와 같은 문화경관 개념은 강과 사람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강 문화를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심미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한계도 있다. 이것은 문화라는 개념을 다의적이고 모호하게 사용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한다. 또한 강 문화를 생산하는 다양한 주체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생태환경적 지역개발정책을 비판하거나, 관광개발의 성공요인을 밝히는데 강의 생태환경적, 자연경관적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으로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며, 지역주민이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문화의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강 문화에 대한 유·무형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학술논문이 아닌 정책보고서에서 시도되었다. 『4대 강 유역 문화자원 현황조사 및 문화

9) 박은희, 「도산구곡의 문화경관 해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환경자원학과 박사논문, 2014.

지도 제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유역의 문화자원을 유형별로 현황 파악하였다. 문화자원의 유형을 인물, 축제·의식, 민속·풍습, 전통 및 테마, 유적지·사적지, 건축(나루터), 조각, 회화·서예, 서적·활자, 공예·자기, 전시·관람시설, 유원·휴양·수련시설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유형과 무형문화유산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분류체계 기준이 불분명하여 ‘강 문화’에 대한 접근방법이 불명확하다. 즉 ‘4대강 유역 문화자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강 문화의 현대적 유용성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강과 그 주변 지역의 경제·문화적인 가치와 기능을 되살려 미래적 관점으로 재구성 한다는’¹⁰⁾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파편적인 제시에 그치고 있다.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스토리텔링 자원을 만들어내고, 강마다 특징적인 이야기를 문화지도¹¹⁾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강의 역사문화적인 가치의 보전과 활용을 시도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문화지도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완주문화대전에서 만경강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구 만경강 철교’,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만경강 전경’ 등 단편적인 정보의 접근만이 가능하다. 즉 “문화자원을 총체적, 집약적으로 지도에 구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한다.

강을 무형문화유산 관점에서 살핀 연구로는 최근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한강 수로와 어로문화』(2018)와 『금강 수로와 식문화』(2019) 보고서가 있

10)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앞의 책, 2009, 39쪽.

11) 문화지도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총체적·집약적으로 지도에 구현하여 문화생산과 활용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의 보고(寶庫)이자 지침서이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유·무형의 문화자원들을 데이터로 가공하여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배치한 것으로 학술적·정책적·실용적 목적 등 자원의 수요자 입장에서 활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표현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앞의 책, 2009, 11쪽).

다. 강을 기반으로 한 어부들의 물고기 잡는 기술, 배 운행 방법 등과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 만든 음식과 관련한 생활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무형문화유산 범주 중에서 어로와 음식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내었다. 강을 배경으로 한 설화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특히 한강이 북한강과 남한강의 문화적 특징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설화의 상징성을 통해 밝히고 있다(강명혜, 2014). 강과 관련한 생태, 유무형 문화유산 등을 좀 더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동진강, 천년의 물길에 깃든 삶과 이야기』(20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진강의 87개 지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풍경, 이수·치수, 문물교류, 농민들의 일상과 삶, 동진강의 생태, 어민들의 일상과 삶,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신앙 등으로 구별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¹²⁾ 강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강 문화와 친연성이 높지 않은 주변 문화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줄다리기 당산제’는 강에서 비롯된 문화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간적인 범위를 보다 더 축소하고, 강 근처에서 이루어진 모든 문화를 아우르는 것이 아닌, 보다 더 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료를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분석할 것이다.

강이 아닌 바다를 대상으로 한 해양문화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바다에 적응하기 위한 어민들의 삶을 다룬 연구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박정석:2008, 오창현:2015, 국립민속박물관:2002). 이중 오창현(20015)은 1900년대 한국과 일본의 어업기술의 차이가 선호 어종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바다를 양국의 이질적인 관습과 문화가 만나 역사적·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그간의 강 문화에 대한 연구는 유형문화, 문화경관, 관광개발 측면에서의 분석이 많고,

12) 정읍시립박물관·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천년의 물길에 깃든 삶과 이야기』, 하나칼라, 2015.

민족지적으로 접근한 사례는 매우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삶과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대상 및 방법

필자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1년 동안 동진강 일대를,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 동안 만경강 일대에 대한 마을조사를 수행했다. 주로 전라북도 완주군, 정읍시, 부안군 내 관련 마을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전북지역에는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금강이 발원하는데, 이중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은 전북지역만을 관류한 뒤 전북의 서해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지는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참고로 만경강 수계는 고산천, 소양천, 전주천, 삼천, 익산천, 탑천, 부용천을 포함하며, 동진강 수계는 태인천(본류),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신평천 등이 해당한다.

마을조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마을 이장단과의 전화 설문을 통해 기초정보를 확인하였다. 이제 농촌지역의 마을 이장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50대도 꽤 많아져서, 마을의 토박이이거나 오랫동안 마을에서 거주해 온 주민들을 추천받았다. 촌로들이 마을의 변화상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와 강과 관련한 어떠한 삶을 살아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해야 하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표 1).

농한기에는 마을 회관에 소그룹의 모임이 있을 때 라포(상호 신뢰와 친밀감)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서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인터뷰를 수행하여 교차검증을 하였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개인 성격 차이에 따라서 편하게 증언하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었고, 산만한 분위기에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한 정보제공자의 경우 가정방문

을 통해 개인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표 1] 주요 정보제공자

연번	이름(가명)	성별	나이	거주지
1	홍수명	남	1942년생	임실군 (출생지: 완주군)
2	장자례	여	1941년생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3	노석수	남	1959년생	완주군 고산면 창포마을
4	김성호	남	1955년생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5	임영자	여	1941년생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6	최순이	여	1941년생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7	박순남	여	1927년생	완주군 용진읍 지암마을
8	소영명	남	1949년생	완주군 용진읍 운교마을
9	최성수	남	1956년생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0	권영순	여	1933년생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1	김영기	남	1950년생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2	유수일	남	1948년생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13	안석수	남	1950년생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14	이소광	남	1937년생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5	안순주	여	1928년생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16	김용철	남	1946년생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7	한호승	남	1956년생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18	유종남	남	1959년생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19	유근택	남	1942년생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20	김고수	남	1938년생	완주군 삼례읍 하리
21	우일찬	남	1923년생	부안군 백산읍
22	김주영	남	1960년생	정읍시 이평면
23	김양석	남	1961년생	정읍시 신태인읍
24	김기선	남	1942년생	정읍시 정우면 수망마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집단 인터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일대일 면담조사만을 진행했다. 질문지는 크게 개인생애사와 마을자원조사로 구성했다. 심층면담에서는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 개인의 주요한 생애사적 경험과 강 문화와 관련한 준비된 질문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기는 의문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있는 조사결과를 선정하고 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정보제공자의 면담자료를 채택하였다.

강 문화는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유무형문화유산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이때에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각종 문화재가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굉장히 광범위해진다. 그러나 이수(利水), 치수(治水), 친수(親水) 기능에 주목하고 연구범위를 축소하면 강 문화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 연속해서 무형문화유산 범주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강과 관련된 인간의 삶을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물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치수(治水)와 이수(利水)를 적절하게 해왔다. 치수란 물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이고, 이수는 물을 이롭게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치수는 홍수와 같은 재해를 대비하여 수량을 배출하고, 지하수를 공급하고 배수하며, 각종 흙과 모래를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수란 각종 상수, 공업, 농업, 소방용수 등을 공급하고, 하천을 통한 이동과 운송에 이용하는 수운역할이 있다.¹³⁾

친수(親水)는 인간이 물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이고 활동적인 상호작용으로서의 문화이다.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기능으로서, 경관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 낚시와 물놀이 같은 여가놀이가 해당된다. 현대에도 교량,

13) 전수빈, 앞의 논문, 2013, 9쪽.

건축물, 야외무대 등의 시설물로서 문화경관을 형성하며, 휴식과 산책, 운동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크다.¹⁴⁾ 이처럼 강 문화를 밝히기 위해 이수, 치수, 친수에 주목하고, 무형문화유산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추가조사를 수행했다.

친수(親水)와 관련 있는 문화경관은 원초적으로 사람의 욕안으로 본 것을 가리키나, 이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 더욱 중요하다.¹⁵⁾ 지역 주민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삶이 시각정보와 함께 포괄적으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관은 눈에 보이는 경관일뿐만 아니라 ‘해석된 경관’, ‘평가된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런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지역주민에게 하천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작업은 중요하다. 더욱이 사람들이 강물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목적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러한 이수, 치수, 친수는 유용하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념과 경험을 다양하게 담아내려면 좀 더 세밀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자는 무형문화유산과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분류하여 사례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IV. 강 문화와 무형문화유산과의 연관성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하여, 무형문화재만을 독립적으로 다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기 법률에서 제시하는 무형문화재 범위 기준을 따르지만, 명칭은 무형문화유산을 사용하겠다. 그 이유는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포괄하는 용어이자, 정책·행정적 관리 대상인 문화재보다 더 넓은 내용을 포함하여

14) 전수빈, 앞의 논문, 2013, 9쪽.

15) 오민근, 2010, 「지역활성화를 위한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 1」, 『하천과 문화』 6-4, 97쪽.

16) 오민근, 위의 논문, 97쪽.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협약,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법, 한국의 과거 문화재보호법과 신법의 하위 범주를 비교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유네스코, 중국,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범주

무형유산보호협약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법 (중국)	문화재보호법 (한국 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 현재)
구전전통 및 표현	전통구전문학 및 그 전달체로서의 언어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전통기예, 전통(민 간)음악, 무용, 전통 희극, 곡예, 잡기	연극, 음악, 무용	전통적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축제	전통예절과 의식, 명절(기념일)등 민 속, 전통체육, 유희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의식주 등 전통적 생 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자연과 우주에 대 한 지식 및 관습	의약, 역법		한의학, 농경·어로 등 에 관한 전통지식
전통적 공예기술	전통미술, 서예	공예기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이 장에서는 강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 주민들이 경험하고 기억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무형문화유산의 하위범주와의 연관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강 문화 접근법은 인간의 문화적 다양성이 자연 서식지 역할, 수질, 다양한 생태계에 달려 있음을 가정한다. 또한 강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활동

을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을 통해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1. 구전전통 및 표현

만경강 최상류 지역에 속하는 완주군 고산면 창포마을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언어전승을 활용했다. 고산면 네 개의 마을이 연합하고, 체험관광을 주목적으로 하여 마을의 이름을 창포마을¹⁷⁾ 이라고 했다. 마을 근처에 흐르는 고산천에는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수생식물과 수생여류들이 많다.¹⁸⁾ 창포라고 명명한 이유는 마을에 거주해온 사람들이 마을의 중요한 자연조건으로 주변에 있는 수생식물이었던 창포를 구전으로 전승해 왔기 때문이다. 창포는 수창포와 석창포로 나뉘는데, 석창포(石菖蒲)는 주로 시냇가, 도랑가에서 볼 수 있으며, 바위틈과 같은 자리에 붙어 산다. 단옷날 창포를 넣어 끓인 물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외에도 과거 이 지역 선비들은 공부를 하면서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이 석창포를 분경으로 만들어 책상위에 놓기도 했다고 한다.¹⁹⁾ 이렇게 마을 이름은 마을의 자연자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창포가 환경오염에 의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 복원하자는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다.²⁰⁾

완주군 경천면 만수동마을은 마을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높아 장수마을로도 알려진 곳이다. 만경강 구룡천 근처에 위치한다. 주민들은 마을이 살기 좋고, 건강한 고령의 노인이 많은 이유가 “물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을을 부를 때 ‘풍부한 물’에 빗대어 생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1960년

17) 안남, 신상, 윤용, 대향 4개 마을이 합하여 이루어졌다.

18) 구술자: 노석수, 남, 1959년생.

19) 구술자: 노석수, 남, 1959년생.

20) 구술자: 노석수, 남, 1959년생.

대 말까지 인근 지역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쌀을 구해갈 정도로 논농사가 성행했다. 이 마을에서는 물이 많은 논을 가리켜 ‘고라실’이라고 했다.²¹⁾

옛날에는 이 산골짜기 물이 졸졸 내려와 산골짜기 밑에서 그러면 막 산에 가서 고사리도 끊고 그러다가 봄에도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산나물도 뜯어다가 고사리도 뜯어다먹고 그랬거든. 그러면 산에 가서 고사리 뜯어가 지고 한 나절 내 해매고 다니다가 그 찬물을 그냥 목이 얼마나 말라 그러면 그 찬물을 엮어져서 꿀꺽꿀꺽 먹다보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물도 맑아가지고 그런데 시원한 그 물이 다 고갈되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때는 가재도 잡고 참 그랬지만은. 지금은 골짜기마다 하나도 없어. 고라실이라는 건 옛날에 이렇게 물이 안 말라. 항상 겨울이나 옛날에는 그냥 미꾸라지가 고물고물해서 그렇게 우리 젊어서만 해도요.

대조적으로 완주군 용진읍 지암마을은 농사지을 땅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메말라서 ‘녹두밭 웃머리’라고 하는데, 이는 “모를 심을 때도 나무를 옆에 짚러서 오므리게 하여 비가 오면 타고 흘러 뿌리가 안마르게”²²⁾ 하는 농사법과 연관된다. 이처럼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주로 빗물에 의존했기 때문에 ‘천수답(天水畓)’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만수동 마을의 경우 ‘고라실’이기 때문에, 비교적 “쌀을 배불리 먹으면서 부유했던” 마을이었다고 추억한다.

이외에도 강과 바다가 합수되는 지점이 현재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신포마을 인근에는 ‘모래골’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땅을 조금만 파면 모래가 나오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인근에서 구포, 신포, 장포 등 ‘포’자를 사용했던 이유도 바다와 연관된

21) 구술자: 임영자, 여, 1941년생.

22) 구술자: 박순남, 여, 1927년생.

것이며 청등마을도 “바다를 비추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즉 석전리와 수계리 일대가 바닷물의 영향을 받았으며, “땅을 파면 빨 속에서 배의 일부가 나왔다”고 증언한다.²³⁾

완주군 용진읍 운교마을은 소양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삼례읍으로 흐르는 고산천과 이 마을 옆으로 흐르는 소양천으로 만경강 줄기가 나뉘는 것이다. 주민들은 예전에 “만경강 줄기 따라 뱃길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마을이 생긴 것을 250년 전쯤으로 추정하고 있어, 200년 전까지 뱃길이 있었다고 증언한다.²⁴⁾ 봉동의 배미산, 인근의 해전리 등 바다 관련 이름이 많다. 마을 경관으로 독특한 것은 돌담이 많다는 것인데, 주로 1960년대에 소양천에서 주운 돌을 사용하여 쌓은 것이라고 한다.

정읍시 이평면은 1914년에 고부군 답내면과 궁동면을 합하여 만들어진 지역이다. “배가 드나드는 평야”라 하여 배리(梨), 들평(坪) 자를 사용하여 ‘이평’이라 하였다. 현재도 ‘배들평야’나 ‘배들 농민’과 같이 ‘배들’이라는 명칭이 지속해서 사용되며 전승되고 있다. 정읍천과 동진강 본류인 태인천이 합류하는 이평면은 하상이 낮아서 홍수와 사리가 겹칠 때에는 신태인 근처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기도 하였다. 1900년대만 하여도 부안군 동진면 문포에서 부안군 상서면 고잔리 목포까지 선박 수십 척이 드나들었다. 백산면에 동진강제수문이 설치되기 전의 일이다.²⁵⁾ 김영수는 목수였던 아버지로부터 1920~1930년에 이평의 말목장터로 장사하러 갈 때의 경험담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 이평을 건너가기 위해서 지나쳐야 하는 곳에 육로는 없었고 빨이 조성되어 있었다. 바닷물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다녀야 하는데, 시장에 갈 때는 반드시 여럿이 함께 다녀야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갈대밭에 숨어있는 도적을 만나면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 경험

23) 구술자: 김영기, 남, 1950년생.

24) 구술자: 소영명, 남, 1949년생.

25) 정읍시립박물관·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천년의 물길에 깃든 삶과 이야기』, 하나칼라, 2015, 119쪽.

담은 이평지역이 해당 시기까지도 나룻배길을 통한 수륙교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더불어 정읍의 정주시장, 신태인장, 태인장, 고부장이외에도 말목장도 작은 규모이긴 했지만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전설화로 주목할 만한 것은 ‘나룻배 도적 이야기’와 ‘동진나루터 후레스럽기가 동진 나루쟁이 빠치겠다’가 있다. 동일한 장소인 부안동진강교를 배경으로 ‘야 이놈아! 나도 멀쩡한 부안 김가²⁶⁾家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동진강의 나루쟁이가 거칠고 예의가 없기로 유명했는데, 부안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동진강 나루쟁이보다도 후레자식이다” 또는 “후레스럽기가 동진 나루쟁이 빠치겠다”라는 표현이 전승되고 있다. 이 지역의 사공은 양반이라고 하더라고 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분고분하는 법”이 없었다. 월천 즉 사람을 업어서 갯벌을 건너 나룻배까지 태워주는 일을 시키기도 어려웠는데, 젊은 여성은 예외적으로 잘 해주었다. 그 이유는 업고 가면서 여성의 엉덩이 밑을 받친 손으로 ‘점잖지 못한 장난질’을 할 목적이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값을 치르지 않고 배에서 내려 도망가서 붙잡았더니, “야 이놈아 나도 멀쩡한 부안 김가다”라고 하면서 호패를 보여서 나루쟁이가 대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워낙 세도가 커서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이후부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멀쩡한 부안 김가다”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한다. 동진나룻배는 부안지역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었으며, 오고 가는 사람들과 각종 물류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문화교류도 활발했다. 평지보다 산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상 도로교통보다는 강을 활용한 수운 교통을 활발하게 이용한 때를 배경으로 탄생한 설화로서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처럼 구전전통 및 표현은 지역민들의 지식, 사회문화적 가치, 집단 기억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26) 정읍시립박물관 ·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위의 책, 121쪽.

2.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유리마을은 땀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인근 마을의 경우 높고 낮은 산이 많아서 땀감이 풍족했던 것과 비교된다. 그래서 이 마을은 ‘또랑가’에 자라던 풀 종류인 ‘줄’을 베어서 묶어두었다가 마르면 땀감으로 사용하고, 밥을 지을 때 불쏘시개로도 사용했다.²⁷⁾ 그리고 마을을 관통해서 흐르던 강에는 붕어, 미꾸라지, 메기, 쏘가리와 같은 민물고기가 주로 많았다. 이처럼 강이 주는 자원은 식수 이외에도 다양하다. 이렇듯 물을 통해서 식수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수생식물도 생산 활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또랑이 산내까지 가는 또랑이 있어요. 지금은 그거를 해냈는데 옛날 방죽이 우리 동네 두 군데 그때는 거기가 많이 있었고 옛날에 섬을 엮어서 크게 엮어가지고 그 늪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겨울에 메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저 앞에도 방죽이 있었고 넓었어. 줄이라고 모를거야. 그게 굉장히 우거지게 많았어. (줄이 풀 종류예요?) 풀 종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땀 나무가 없었잖아. 그거를 베어가지고 묶어서 쪽 세워놔. 마른 그런 것들은 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용도로 써요? 줄을 어떤 용도로.) 우리 때 어릴 적에 그게 이만큼 올라오면 그 늪을 뜯어서 빼면 빠져. 그러면 가서 먹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커 버리면 그 늪을 베어서 묶어서 해 놔. 마르면 그 늪을 가져다가 찌서 밥도 해 먹고 그런데 지금은 없어 그게. (기억하시기에 몇 년도까지는 있었어요? 이 마을에?) 그게 저희 어렸을 때 까지 있었으니까 한 3, 40년 전에 있었죠.

완주군 용진읍 서계마을의 서계는 ‘서쪽에 있는 냇가’라는 의미이다. 서계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는 소양천과 고산천이 만나는 강이었다. 이 강에서

27) 구술자: 유종남, 남, 1959년생. / 유근택, 남, 1942년생.

군산과 완주사람들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다. 제방이 들어선 후 서계마을이 생겼고,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한데 모이는 지점이라는 뜻으로 ‘두물머리 마을’ 또는 삼각지라고도 불렀다. 만경강의 하류에 위치한 이 마을의 천에는 메기, 가물치, 모래무지 등의 민물고기가 많아서 즐겨 먹었다.

해방과 육이오 전쟁을 같은 마을에서 모두 겪은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마을의 권영순은 유년시절의 만경강은 경제활동을 위한 절대적인 자원이었다. 이 마을의 남자들은 모래를 삽으로 떠서 옮기고, 여자들은 모래와 자갈을 골라내어 팔았다. 만경강의 물이 “깨끗하고 좋아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많은 주민들이 “모래 팔아먹고, 자갈 팔아먹고” 살아왔다.

그렇게 살고, 어떤 가정에는 물고기. 물이 깨끗하니까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가지고 물고기. 그물 이렇게 투망이 있어. 잡아서 그놈을 여자들이 갖고 다니면서 팔았어. 그렇게 살아. 진짜 이 동네가 그렇게 곤란했어요. 모래 팔아먹고, 자갈 팔아먹고, 물고기 하면서 팔아먹고.

농지가 없었던 마을이었기에 그만큼 형편이 어려웠다. 그래서 “비비정에는 시집을 안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물고기 잡아먹고 자갈 주워 먹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채취한 모래와 자갈을 1980년대 까지 익산에 위치한 벽돌회사가 주로 구입했다. “물 반 고기 반”이었던 상황은 전주시 팔복동에 공장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 “달팽이 하나, 조개 하나 없이” 사라지며 달라졌다. 그 전까지는 달팽이, 조개, 뱀장어를 주로 잡아 팔았던 기억도 있다.

완주군 이서면 원반교마을은 지금은 물고기마을로 불린다. 조선시대에 말을 타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던 다리가 있었는데, 선비들이 지나가기 위해 넓은 돌 다섯 개를 이어 만든 다리였고, 강 양쪽에 양반들이 쉬던 정자가 있었다. 그래서 낙마교(落馬橋)로도 불렸다. 향어와 메기가 많았던 이 지역에

서 현재 관상어 물고기를 많이 양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겨울에도 비교적 춥지 않아서”이다. 물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황토질 땅’이다. “충청도 지역의 경우는 겨울 추위 때문에 물고기를 양식하기가 어렵고, 고창군과 같이 남부 지역은 흙이 갯벌땅(개펄)과 같고 냄새가 나서 물고기의 색깔이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강물과 함께 흙, 모래, 자갈과 같은 자연자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전통적 놀이·축제

완주군 삼례읍을 흐르는 한내 강가가 유명해진 이유는 ‘물놀이’ 때문인데, 물놀이를 하러 익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한내(漢川)’에는 일제강점기에도 물놀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본인이 운영하던 음식점들도 생겼고 거기서 팔던 막걸리와 민물고기 튀김이 유명했다. “놀다가 죽으면 이리 사람”이라고 증언할 정도로 익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 인근으로 물놀이를 왔다. ‘한내(漢川)’는 큰 하천이라는 의미이며, 깊은 산속에서 물이 흘러 형성된 소양천과 고산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면서, 전주천과 삼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리(익산의 옛 이름)는 배산 밖에 없잖아. 물가가 없데. 물놀이 할 데가. (그래서) 여기 와서 죽었다 하면 이리 사람. 기차 타고 와 갖고는 산 넘어서 쪽 넘어와 그래갖고 여기서 물고기 덴뿌라(天浮羅, てんぷら) 얼마나 맛있다고. 그걸 먹고 가.

동진강 정읍천이 태인천에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는 이평면의 만석보에서는 어린시절 풀개잡이를 하며 놀았다고 증언한다. 1970년대까지도 만석보 인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뻘이 형성되어 있었고, 썰물 때 들어와 빠지지

못해 고인물에서 주민들이 풀게와 웅어를 많이 잡아 먹거나 팔았다. 감조하천(Tidal River)이란 하류부에서 밀물과 썰물 등 조수현상의 영향을 받아 수위와 유속이 변동하는 범위를 가진 하천으로 밀물 때는 하구에서 상류쪽으로 조수가 거슬러 올라오게 된다. 따라서 인공제방이나 방조(防潮)수문을 설치하지 않는 한 만조시에 바닷물이 침수해 들어오게 된다. 이처럼 만경강과 동진강은 다른 강과 달리 서해에 가깝게 위치한 지역적 조건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감조(感潮)하천 구간이 많았다.

풀게는 털이 달린 게로 후라이팬에서 기름에 튀기면 풀냄새가 나서 ‘풀게’라는 이름으로 불렸다.²⁸⁾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먹었다고 회상한다. 이렇듯 식생활과 관련 있는 것뿐만 아니라 풀게에 실을 메달아서 서로 싸움을 시켜 보는 등 아이들의 간식거리이자 장난감이었다. 백산에 수문이 없었던 때에는 바닷물이 밀물 때 들어왔기 때문에 마을 여성들이 ‘다라이’에 손으로 잡은 송어를 넣어서 시장에 나가 팔았다. 특별한 기술과 도구가 없어도 가능했다. 밀물 때 들어왔던 고기들이 썰물 때 웅덩이 같이 움푹 파인 곳에 갇혀서 미처 못 빠져나가면 그것을 건져 대야 같은 곳에 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백산 수문이 조성된 후부터 바닷물의 유입이 없어졌다고 하고,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 점차 농약으로 인하여 풀게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여름철 냇물에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놀이를 천렵(川獵)이라고 하는데, 완주군 봉동읍 신상마을 주민들도 고산천에서 천렵을 즐겼다. 천렵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었던 조건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자갈이다. 1950년대~1960년대까지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자갈 위에서 바로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고, 또 여름밤이면 자갈 위에 ‘깔 것’을 깔고 더위를 피해 잠을 자기도 했다. 역시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콩 비지를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 물고기를 잡아 먹는 것은 최고의 영양식이었다.

28) 구술자: 김주영, 남, 1960년생.

이 마을에서는 독대(작살)라는 대나무 도구와 그물망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았다. 주로 메기, 붕어, 피라미, 불거지, 뱀장어, 새우 등이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 볼 수 없는 토종 민물고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강이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동의도 이루어지고 있다.²⁹⁾ 만경강과 동진강 역시 문화 다양성과 밀접했던 생물자원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익산시 춘포면 반도마을 근처 완주군 삼례읍 신왕마을에서는 주민들이 1960년대 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여러 명의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학생이 책가방을 모두 잃어지고 마을로 왔다고 강조한다.³⁰⁾ 책가방의 무게가 무거워서 피를 낸 게임 규칙만은 아니다. 내기에서 이긴 학생들이 더위를 피해 강을 따라 헤엄쳐서 집으로 귀가를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는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데야. 붙으면 절대 안 떨어졌어. (흙이 원래 그런) 찰흙. 새카만 흙. 저기가면 엄청 많이 있어.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어요? 흙이 왜 그러는지?) 여기가 왜 그런 흙이 나오냐면 뽕이야. 그릇 굽는 흙 있잖아? 그 흙이야. 그래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 가면은 그 놈 가지고 놀았어.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어 쪽 세워놓고.

이처럼 이 마을은 인근 땅이 모두 진흙이었기 때문에 “장화 없이는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검은 찰흙이 지금도 많이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검은 찰흙은 남자 아이들의 주된 장난감(비행기, 대포, 자동

29) Karl, M. W., Aziz, B., Isabelle L., Ibrahima B., ... Maciej Z., “River cluture: an eco-social approach to mitigate the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crisis in riverscapes,” *Ecohydrology & Hydrobiology* vol.16, Issue1, 2016, pp. 7~18.

30) 구술자: 한호승, 남, 1956년생.

차 등)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했다.³¹⁾

4.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지장인 홍수명³²⁾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했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위한 장소에서도 현관 입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많은 양의 물이 담긴 초지통을 옮기기가 손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보통 전통한지라고 하는 것은 음양지라고 할 수 있다. 제작 과정에서 뜨는 방식과 물질방식 역시 중요하다. 수증기로 쪄낸 닥나무에서 속껍질인 백피를 모아 잿물에 삶은 후 섬유질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찜는다. 발틀로 섬유질을 얇게 떠낸 후 다시 한 번 뜬 종이 두 장을 겹쳐 붙여 말린다. 닥나무에서 추출한 섬유가닥은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종이 두 장을 붙여 표면을 균일하게 만들고, 다듬이질로 부드럽게 다듬는 것이다. 홍수명 한지장은 한지를 제조할 때 만드는 과정만 배워서 안 된다고 강조한다. 계절과 날씨에 따른 습도에 맞추어 종이 뜨는 기술을 오랜 연륜을 통해 갖추어야 한다. 한지는 물과 불의 조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수분을 머금은 닥나무는 벨 때부터 수세하고 초지³³⁾하는 공정 동안 물과 항상 공존하며, 원료를 유연하게 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는 불이 필요하다.³⁴⁾

31) 구술자: 한호승, 남, 1956년생.

32) 구술자: 홍수명, 남, 1942년생.

33) 초지는 완전하게 해리된 닥 섬유를 초지통에 닥, 닥풀, 물을 일정 비율로 희석한 후 종이를 뜨는 작업을 말한다.

34) 한지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닥나무 채취→닥무지(닥나무 쪄기)→닥나무 껍질 벗기기→백피 만들기→수세하기→백닥 말리기→잿물 만들기→닥섬유 삶기→수세하기(티 고르고 일광표백)→닥섬유 두드리기→닥섬유 해리→닥풀만들기→지료와 닥풀 섞기→초지하기(물질하기)→뜬 종이 판에 붙이기→등글통으로 기포 제거→습지와 발 분리하기→압착탈수→이랫대로 떼어내기→일광건조→도침하기(종이를 두드려 펴줌).

전주 서학동의 공수내다리에서 동쪽으로 뺀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흑석골이 나온다. 흑석골이라는 이름은 바위가 많아서 지어진 이름인데 바위들의 색깔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흑석골(黑石谷)이라고 한다.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닥나무인데, 닥나무 이외에도 물이 중요하다. 흑석골에 흘렀던 계곡물이 일 년 내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지를 만드는 공장인 지소공장이 1970~1990년대까지 많았다. 그래서 흑석골이라는 이름 이외에도 한지골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 것이다. 한지는 만경강의 지류인 소양천과 전주천의 지류인 공수내 인근에서 생산되었다. 흑석골의 강은 수량이 풍부하고 철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 한지 생산에 적합했다고 한다.³⁵⁾ 흑석골에는 닥나무가 한그루도 없었지만, 완주군의 구이면과 소양면, 충청남도의 대천과 서천 지역의 닥나무들을 가져와 종이를 생산할 수 있었다.³⁶⁾

완주군 고산면의 신상마을에서도 한지 제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⁷⁾ 이 마을 역시 만경강 운문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지 제조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게 한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의 담 옆에 납작한 돌이 놓여 있는데, 닥돌이다. 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를 거두고 껍질을 벗겨 백피를 만든 뒤 잿물로 증해한 뒤에 물로 씻어서, 평평한 돌 위에 놓고 방망이로 두드려 물기를 뺀다. 즉 넓은 돌판(닥돌) 위에 올려놓고, 나무방망이(닥방망이)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방망이질을 하면 닥의 섬유질이 짓이겨지고(타해) 펼쳐진다. 신상마을에서 발견한 모서리가 매끄럽지 않은 상태의 닥돌은 현재는 담 옆에 방치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마을의 대표적인

35) 한국연구재단·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무형문화의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통한 전통지식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결과보고서』, 2013, 16쪽.

36) 한국연구재단·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위의 책, 16쪽.

37) 구술자: 장자례, 여, 1941년생. 2011년에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한 『완주한지의 역사성과 유적·유물』에서 완주 지역을 전수조사하여 화산면, 비봉면, 동상면, 소양면, 상관면, 구이면의 지소와 유물을 중심으로 소개하는데 고산면은 누락되어 있었다.

전통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신상마을은 ‘우바우’라고 부르고 윗 마을을 ‘괴바우’라고 부르는데 이 곳에서 1960년대 초까지 한지를 제조했다. 한지의 품질이 좋아서 입소문이 많이 났었다고 한다. 이처럼 두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좋은 품질의 한지 제조의 필요조건이 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정읍시 입암면 상부마을에서는 복조리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었다. 농사를 짓기 적합하지 않은 땅이어서 입암산의 자연자원인 산죽과 시누대를 사용하여 복조리를 만들었다. 복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채취해 두었다가 만들기 직전에 뽀뽀한 대나무의 성질을 구부러서 만들기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마을에 흐르는 강물에 담가 불려두어야 한다. 이렇게 강가에 수북이 쌓인 대나무는 독특한 문화경관을 연출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조릿대와 섞이지 않도록 표시를 해두었다. 복조리의 생산과 소비가 활발했을 당시는 사람들이 주기성을 지닌 민속으로 ‘복’이라는 상징적인 믿음체계에 따라 실천했다. 따라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두개를 한 쌍으로 묶어서 제작하였다. 따라서 경기도와 전남지역의 복조리 묶는 형태와 차이가 있는 독특한 이 지역의 공예품이 탄생했다.

5. 전통적 공연·예술

앞서 소개한 마을 이름이기도 한 비비정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조선시대 누정이다. 이 누정은 ‘한내’라 부르는 삼례천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다. 조선시대의 정자인 비비정은 완산지에 의하면 1573년(선조 6년)에 무인 최영길이가 건립했으며, 그 후 철거되었다가 1752년(영조28년)에 관찰사 서명구가 중건했으며, 오랜 세월 정자가 없다가 1998년에 복원되었다. 강의 친수기능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것이 서경 및 관조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비비정 전면에 삼례천이 유유히 흐르고 드넓은 호남평야가 펼쳐져

있어 경관이 매우 수려하기 때문에 선비들이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이다. ‘비비낙안(飛飛落雁)’의 의미는 비비정에서 한내 백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 떼를 감상하는 것을 말한다.

우암 송시열이 비비정에서 시와 운문을 지으며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 그가 지은 <비비정기>역시 이곳에서 유래했다. 풍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미적인 감각과 정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풍류사상과도 관련 있다. 풍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와 운문뿐만 아니라 현악기 중심의 줄풍류도 포함된다. 풍류는 가곡, 시조, 가사를 지어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는 모든 예술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인데, 현재는 주로 현악기 중심의 줄풍류(음악)만 전승되어 알려져 있다.

(예. 그러면은 그때 집안에서 음악소리 같은 게 많이 났어요?) 아이고, 말 못해. 명절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북적거리고 그리고 막 방에 둘러앉아서 동네사람들 다 와서 그랬어. (그때가 언제쯤 됐는지 기억나세요?) 그때가? 내가 한 스물 한살 두살? 애기 낳고 키울 때 내가 그러고 살았지. (그러면 1950년도예요? 40년대 말에서 60년대까지 그렇게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이런거요?) 모두 다 들었지. 그전에는 노인네들도 다 살아서 우리 시어르신이랑 살아서 유명한 사람이지. 오면은 손님들 대접하고.

비비정이 있는 근처인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별산마을의 안순주의 위와 같은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시댁에서 풍류객이 모여 교류를 했다고 한다. 안순주는 유이수의 부인이자 유성옥의 며느리인데, 신태동³⁸⁾역시 유성옥과 음악적 교류를 했다고 한다. ‘연꽃방죽’이라고도 불리던 이 풍류방에서 타

38)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의 전승자로 지정된 예능보유자이다. 같은 집안의 유희동의 증언에 따르면 신태동이 유성옥과 음악적 교류가 활발했다고 한다. ‘연꽃방죽’이라고 불리는 이 풍류방에서 당대 음악인들이 모여서 연주를 즐겨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인들이 모여서 연주를 즐겼다. 경치 좋은 곳을 찾아 계를 열어 현악기 중심의 음악을 연주하는 등의 풍류를 즐기는 계모임이 있었던 것이다. 1940~1950년대까지 집안에서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등의 전통악기 연주소리가 끊이질 않았다.³⁹⁾

호남지역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리향제줄풍류와 구례향제줄풍류가 전승되고 있다. 인근지역인 정읍시에도 향제줄풍류(鄕制줄風流)가 샘소리터라는 풍류방⁴⁰⁾에서 전승되고 있다. 상기 사례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완주지역에서도 풍류방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동진강과 만경강 일대에서 이루어진 하구 간척사업, 동상저수지와 대아저수지 축조, 제방공사 및 간선수로 개설, 직강공사, 제수문 설치 등은 모두 1920년대 이후 본격화됐다. 특히 1930년대에는 하안에 인공제방을 쌓고 곡류가 심한 부분에 직강공사를 하여 곡류하천의 하도가 직선상 하도로 변했다. 정읍시 용산동 복룡 마을은 ‘복룡(伏龍)’이라 하여 뱀 같은 구불구불한 물길에 조성되어 있었는데, 경지정리 및 수로정비를 하면서 직선화되었다. 이 마을에는 ‘자연적’으로 천이 흘러야 사람들이 잘 어우러져 살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인물’이 많이 배출된다는 풍수지리적인 믿음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큰 도로와 제방이 형성되면서 마을의 번영도 함께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믿고 있다.

한편 완주군 삼례역과 대명아파트 사이에 금반마을이 있는데, 대명아파트

39) 구술자: 안순주, 여, 1928년생.

40) 풍류를 벌리는 장소를 풍류방(風流房)이라 한다. 호남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향제줄풍류는 주로 거문고, 가야금, 양금, 대금, 단소, 피리, 해금, 장구 등의 악기들로 편성되었다.

자리는 복개 공사 이전에는 냇가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이 장소에 수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계속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때 주민들은 실제 공사를 위해 동원되었던 마을 주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석재로 불상을 만들었다고 한다.⁴¹⁾ “불상을 세우고 나서 수로를 파니까 수로가 무너지지 않아서 제대로 공사를 했었”다고 한다.⁴²⁾

즉 이 두 사례를 통해 근현대시기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위에 있었던 민간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주민들의 실천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전통과 근대의 대립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일본의 ‘물 조절 대규모 프로젝트’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세대를 통해 학습되며 믿었던 신념을 한편으로 유지하며 믿고 표현한 것이다.

정읍시 정우면 수망마을은 동진강변에 위치한 마을이다. ‘수망(水望)’이라는 것은 ‘물이 많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마을에 당산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주민들은 500년동안 마을을 지켜준 ‘당산할매’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에는 제방이 없을 당시 홍수가 나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홍수가 “1년에 몇 번씩” 났던 것으로 기억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한다. 비가 많이 오면 “바다와 같이 철렁철렁”해지도록 마을이 잠겼지만, 그나마 신속하게 물이 빠지는 지형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다. 또한 당산할머니가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는 민간신앙이 있다. “당산제를 지내지는 않고 술 한잔 부어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당산나무는 큰 홍수가 빈번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고 성공해서, 아들 딸 잘 낳아 기르게 해주었다”는 믿음의 근원이다. 즉 특별한 제의나 제물 없이 마음으로만 기원했다. 홍수가 나면 주민들이 마을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 이 당산나무 앞에 있는 정자에 모이기도 하고 나무위로 올라가서 홍수를

41) 구술자: 최성수, 남, 1956년생.

42) 냇가 바위 위에 세워두었는데 현재는 논가의 평지 위에 방치되어 있다.

피하기도 했다. 벼가 물에 잠겼다가 빠지면 “꾸꾸미 나락이 되었지”만 전혀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⁴³⁾ 이 마을 주민들은 애착과 적응을 기반으로 자연과 공생관계를 공유했다. 마을 초기 정착자들은 물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강 가까이에 모여 살았지만, 침수되지 않도록 홍수경로를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지형의 고유한 형태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사례는 홍수가 빈번해도, “살 수 있을 만큼”이라는 긍정적인 사고체계를 갖게 한 민간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V. 무형문화유산 범주로 살펴본 강 문화

지금까지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를 통해 강에 기대어 산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살펴보았다. 사례별 강의 위치를 확인하기 쉽게 분포도로 제시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처럼 강과 밀접한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을 밝히는 과정은 강 문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① 완주군 고산면 창포	⑥ 완주군 삼례읍 유리	⑪ 완주군 봉동읍 신상	⑯ 완주군 삼례읍 별산
② 완주군 경천면 만수동	⑦ 완주군 용진읍 서계	⑫ 완주군 삼례읍 신상	⑰ 정읍시 용산동
③ 완주군 삼례읍 신포	⑧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⑬ 전주시 서학동 후석골	⑱ 완주군 삼례읍 금반
④ 완주군 용진읍 운교	⑨ 완주군 이서면 월반교	⑭ 완주군 고산면 사상	⑲ 정읍시 정우면 수망
⑤ 정읍시 이평면	⑩ 정읍시 이평면 만석보	⑮ 정읍시 입암면 상부	⑳ 부안군 백산면 동진강교

43) 구술자: 김기선, 남, 1942년생.



[그림 1] 무형문화유산 범주로 살펴본 마을 사례의 분포도
(지도출처: 국토정보플랫폼)

이수·치수와 관련 있는 강 관리의 일반적인 예는 여러 용수원으로 사용, 수력발전으로 이용, 홍수, 토사, 하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처리 등이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 범주로 살펴보면 구전전통 및 표현,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등으로 확장 가능하다. 친수 기능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예는 심리적 만족, 오락, 경관형성, 공원으로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한 무형문화유산으로는 전통적 놀이·축제, 전통적 공연·예술이 있다(표 3). 가악을 통한 취미생활의 영위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가악(歌樂)활동을 위한 장이 된 고유한 ‘풍류 문화’는 일반적인 친수기능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이수·치수·친수 기능은 강과 관련한 인간의 활동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 범주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문화의 특수성과 다양성이 드러난다.

[표 3] 이수·치수·친수 기능과 무형문화유산 범주

분류	일반적인 예	무형문화유산 범주 예
이수·치수 기능	용수원(상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소방용수)	- 구전전통 및 표현 -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수력발전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홍수, 토사, 하수 피해 방지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친수 기능	심리적 만족	- 전통적 놀이 - 전통적 공연·예술
	오락기능(낚시, 물놀이)	
	경관형성(건축물, 교량)	
	공원(산보, 운동)	

강을 사용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지리적 여건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물은 극복해야 하는 자연환경이면서 동시에 생활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여러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구전전통 및 표현에서는 강을 대상으로 각종 수생식물에 대한 의미체계와 농사를 지을 때 용수로서 활용된 강물과 관련한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살펴볼 수 있었다. 더욱이 어느 지역의 강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지만, 각종 수리시설이 완비되기 이전에 서해바다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은 결과로 만들어진 지명유래도 확인했다. 지금은 육로가 활발하지만 해상교통으로 유일하게 외부세계와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흥미로운 이야기도 소개했다.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에서는 특히 강물이 농업용수 이외에 어떻게 활용되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땀감 대응으로 사용된 강가의 풀, 자갈과 모래 채취로 생계를 유지한 사례, 수질과 동시에 토질의 특성과도 적합한 생산활동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인 친수라고 할 수 있는 강가에서 행해진 놀이는 천렵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양산했고, 실제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천렵국’이라는 명칭의 요리를 즐겨 먹는다. 감조하천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진흙이 풍부했던 곳의 어린이들이 즐겨했던 놀이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만경강과 동진강의 가장 큰 특징은 감조(感潮)하천 구간이 길며 전형적인 자유곡류하천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강이 많아서 밀물 때면 하구에서 상류 쪽으로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와 다양한 바닷고기 손잡시도 가능했다. 1964년 이후 백구면 등에 제수문을 설치하여 감조구간이 단축되었다.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분야에서는 전주한지가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수질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물론 수질 이외에도 좋은 닥나무와 제조 기술이 결합되어야 하지만, 여러 정보제공자가 강조하는 공통된 의견은 좋은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질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에서는 반드시 제한된 지식의 조건 하에서만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는 마을 공동체 믿음이 있었다는 가설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 현대에도 강과의 소통의 매체로서 자연의 이치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공생관계를 추구하려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전히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사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농촌지역 마을 주민들의 사고체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주된 기능은 내면의 두려움을 해소하여 편안함을 얻고, 강 관리의 자신감을 향상시켜 부정적인 심리와 절망을 제거하는 것이다.⁴⁴⁾ 즉 사람들의 관념이 강에 어떻게 투영되고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개인의 의식구조와 공유되는 집단의식을 엿볼 수 있다.

44) Wang Wei, Wang Lachun, “The influence of witchcraft culture on ancient Chinese water relations—a case study of the Yellow River Basin,” *Urop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53, 2020, pp. 93~95.

Ⅵ. 결론

사람과 강과의 관계는 과거에도 상호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현재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회적 생산력, 과학기술, 자연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인간 능력의 성장은 강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질이 좋은 지역에 한지제조업체가 늘어나면서 폐수량이 많아져서 오히려 밀집되었던 지소 공장이 사라지게 되기도 했다. 이처럼 역설적으로 여전히 강과 관련한 삶과 문화의 모습은 소멸한 것도 있고, 유지되기도 하며, 일부가 변화하여 계승되고 있는 것도 있다. 끊임없이 사람에 의해 생성, 변화, 소멸하는 무형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즉 이 연구는 강과 인간과의 관계와 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형문화유산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특히 1920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배경에서 나타난 강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강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현대 생활에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⁴⁵⁾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원 중의 하나가 물 자원이다. 다양한 여가를 위한 문화체험과 조화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특정 지역을 관통하며 흐르는 강은 친환경적 개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삶과 문화가 가치 있게 조사되고 기록되어야 하는 곳이다. 특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는 지역적 특수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각종 개발정책을 세울 때에도 활용할 가치가 있는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론이다. 왜냐하면 기억을 말할 때 우리는 과거에 대한 변화된 인식에 미묘하게 영향을 받으며, 현재의 정체성과 욕구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⁴⁶⁾ 그리고 이와 같은 정체성 중에서도 지역정체성에는 ‘지역 내 주민들 내의 동일시 작업’과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차별화 작업’ 두 가지가 동시에

45) Wang Wei, Wang Lachun, Ibid., p. 100.

46) 도날드 A. 리치·손동유 옮김, 『현대 구술사 연구의 현장』, 선인, 2016, 146쪽.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⁴⁷⁾

이 글에서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강 문화를 밝히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지역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남아 있거나 기억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의 친연성에 주목하여 유형문화유산 속에 담겨있는 무형적 요소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나루터와 다리에 얽힌 설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믿음체계, 물을 활용한 전통공예 제작기술, 강과 관련한 다양한 생산활동 등이다.

연구결과로 주목할 점은 우선 강의 분류와 지류가 만나는 지점,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과 같은 경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둘째, 근현대시기 강을 대상으로 이수와 치수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때로는 반응했는지에 대해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함으로써 역사적인 의미를 살필 수 있었다. 셋째, 강이 주는 여러 가지 심리적 경험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특정 사람에게는 ‘가난의 상징’이지만, 같은 강을 사이에 둔 인근 마을 주민은 여가와 놀이의 주된 공간으로 기억했다. 즉 같은 강이더라도 계급·계층에 따라 다른 해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현대에도 지속해서 전승되기도 하며, 때로는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소멸하기도 한다. 여러 주체의 다양한 인식과 경험이 혼재되어 있으며, 지속해서 변화하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기에 강 문화를 규명하는 작업은 과거의 사실 그 자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실, 또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인식이 지금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고 해석하려는 과정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강 문화는 그 특수성과 시대구분의 모호함으로 인해 기존 제도권 내에서

47) 변창구, 「구성주의 이론에서 본 ASEAN의 정체성과 지역통합」, 『대한정치학보』 18-2, 2011, 29쪽.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되기 어려운 사례도 많았다. 특히 근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조차 등록 대상을 유형문화재로 한정하여, 무형문화유산은 등록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강 문화의 무형문화유산 속성을 살펴본 본 연구는 강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한 연구 성과가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시간적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하에서 기준이었던 전통 사회의 것에서 근대 이후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전통사회는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근대화된 열강들에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의 사회이지만, 무형문화유산의 종목에 따라서는 1960-70년대까지 창조적으로 계승된 것도 다수 존재한다.⁴⁸⁾ ‘오늘날 전통이 될 만한 것’이라는 가치를 찾고 드러내야 하며, ‘전통’의 요건을 다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⁹⁾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에 따른 문제로 강의 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치수기능을 우선시한 관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강이 갖는 풍부한 특성과 그에 대한 가치를 대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⁵⁰⁾ 본고에서 살펴본 강 문화는 고유의 생태계와 통시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불어 강 문화라고 해서 강과 바다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합수 지점과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감소하천 구간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했다.

강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처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고, 친환경 관광산업을 위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가치자원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전해 주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자연과의 상호조화를 추구하며,

48) 문화재청·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연구』, 인체나라, 2011, 63쪽.

49) 문화재청·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의 책, 64쪽.

50) 오민근, 앞의 논문, 2010, 99쪽.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지속해온 무형문화유산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명혜, 「문화적 프리즘을 통해서 살핀 한강의 정체성 연구」, 『은지논총』 40, 2014.
- 곽장근, 「고고학으로 본 군산의 역동성」, 『전북사학』 45, 2014.
- 국립민속박물관, 『경남 어촌민속지』, 2002.
- _____, 『한강 수로와 어로문화』, 2018.
- _____, 『금강 수로와 식문화』, 2019.
- 권영상·조민선,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2010.
- 김낙중, 『영산강유역 고분 연구』, 학연문화사, 2009.
- 김재승, 「마을하천 복원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방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도날드 A, 리치·손동유 옮김, 『현대 구술사 연구의 현장』, 선인, 2016.
- 문지영·오덕성, 「도시공간 속 수변개발을 통한 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2, 2007.
- 문화재청·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연구』, 인쇄나라, 2011.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4대 강 유역 문화자원 현황조사 및 문화지도 제작방안 연구』, 2009.
- 박승희, 「낙동강의 고대문명과 교류·혁신 콘텐츠 연구」, 『대구경북연구』 18-2, 2019.
- 박은희, 「도산구곡의 문화경관 해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환경자원학과 박사논문, 2014.
- 박정석, 「공동체의 규범적 순응과 강제:해남 땅끝마을의 어촌계와 자치규약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43, 2008.
- 변창구, 「구성주의 이론에서 본 ASEAN의 정체성과 지역통합」, 『대한정치학보』

18-2, 2011.

성정용 외, 『백제와 영산강』, 학연문화사, 2012.

오민근, 「지역활성화를 위한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 1」, 『하천과 문화』 6-4, 2010.

오창현, 「물고기, 어업기술, 민족관습: 식민지기 어업 경제 구조에 대한 경제인류학적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8-1, 2015.

완주군.사)무형문화연구원, 『완주군 근현대 자료 수집 및 기록 연구용역Ⅱ』, 2020.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주)그래픽코리아, 2019.

이정재, 「하천변 친수공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창언·이경아, 「해양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의 동향과 전망」, 『도서문화』 56, 2020.

이현숙, 「금강 유역 한성기 백제 지방사회의 교류와 지역권」, 『한국고대사연구』 73, 2014.

전라일보사·사단법인 전북개발연구소, 2010, 『전라북도 4대강 대탐사』, (주)명함천국.

전수빈, 「도심하천복원과 지역주민 거주환경의식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정성미, 「지속가능한 풍류방문화와 풍류객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7-1, 2014.

_____, 「전통공예의 전승과 변화 - 복조리 사례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0, 2012.

정성미·이민석, 「동진강 전시를 위한 문화유산 원천소스 개발 및 가치창출」, 『무형유산학』 4-1, 2019.

정읍시립박물관·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천년의 물길에 깃든 삶과 이야기』, 하나칼라, 2015.

한국연구재단·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무형문화의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통한 전통지식 수집과 아카이브 구축·결과보고서』, 2013.

- Karl, M. W., Aziz, B., Isabelle L., Ibrahima B., ... Maciej Z., "River culture: an eco-social approach to mitigate the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crisis in riverscapes," *Ecology & Hydrobiology* vol.16, Issue1, 2016.
- Wang Wei, Wang Lachun, "The influence of witchcraft culture on ancient Chinese water relations-a case study of the Yellow River Basin," *Europ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53, 2020.
- UNESCO, The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 UNESCO,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for safeguarding ICH: training of traine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1.

2 인터넷 웹사이트

-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mn/mainPage.do>)
-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http://cafe.daum.net/gimporiver>)
- 디지털 완주문화대전 (<http://wanju.grandculture.net/wanju>)
- 非物质文化遗产 国家名录 (www.ihchina.c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RIVER CULTURE: FOCUSING ON THE
MANGYEONG RIVER AND DONGJIN RIVER

JEONG SEONGMI (JEONG, SEONG MI)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river culture. What are some approaches to understanding river culture?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river culture? Can the data surveyed on people living near the river enable a multi-faceted approach to time, space, and themes related to the river?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rivers and humans and their influence on life from the perspectiv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ased on interviews with people living near the river, the idea of remembering and recognizing the river was analyzed in the light of the attribut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core values were searched. Rivers flowing through a specific area should be investigated and documented in value, as well as eco-friendly development, and the life and culture of the area. This is because river culture can be understood in the process of variously reflecting human behavior with its own ecosystem.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rough the case of the Tidal River section that is affected by seawater that the river culture should not be divided into a dichotomy between the river and the sea. Academic research that can contribute to realizing a rich and prosperous culture should be conducted,

seeing it as an important value resource that contains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region. In other words, research is needed to pursue mutual harmony with nature and pay attention to the socio-cultural attributes that have been shared and sustained among people.

Key Words : River cultu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iver, awareness, interview